

## HEADLINE NEWS

### 공공 어린이놀이터 안전도 조사 실시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는 최근 공공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3 Playground Safety Report Card Project」라고 불리는 이번 조사는 시에 근거를 둔 'Keenan's Kids Foundation'과 조지아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내 160개 공공 어린이놀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한 30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물 노후 정도, 놀이터 관리 수준, 썩은 나무 등과 같은 유해 환경 존재 여부 등 10개 평가 영역에 대해 'Playground Safety Report Card'를 이용해 등급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사 대상 놀이터가 최소한 1개 영역에서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놀이터 안전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안전도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어린이놀이터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있다.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03. 7. 28)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미국 최초로 「광역재난관리통제센터」 개설 (워싱턴DC)

### 도시환경

- ②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물재생센터」로 변경 (동경)
- ③ 대기오염 감축 위해 연료전지버스 본격 운행 (런던)
- ④ 쓰레기배출 감량을 위한 「G30 행동선언」 추진 (요코하마)
- ⑤ 시의회, 그린벨트 보호 위해 개발계획안 부결 (영국 셰필드)

### 도시교통

- ⑥ 도심진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제도 성공적으로 정착 (런던)
- ⑦ 가장 오래된 지하철역의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계획 추진 (런던)

### 사회복지

- ⑧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치료 실시 (스페인: 에스테포나)
- ⑨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교실」 개최 (일본: 이바라키현)

### 행정

- ⑩ 공무원 인사에 '능력등급제' 도입 (동경)
- ⑪ 도로현장 파견공무원의 근무태만 신고제도 도입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 ⑫ 시민이용시설 인터넷예약시스템 시행 (요코하마)
- ⑬ 민간자본 활용해 노후화된 철도차량 교체 (모스크바)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① 미국 최초로 「광역재난관리통제센터」 개설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市는 市 주변지역의 4개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재난관리통제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개설할 예정이다. 광역 차원에서는 미국 최초의 재난관리기관이 되는 이 센터의 개설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는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市는 이 센터를 통해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즉각 분석해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 센터의 개설과 동시에 화학약품을 실은 열차의 탈선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의 실험함으로써 그 효과를 파악할 예정이다.

(gcn.com/vol1\_no1/daily-updates/22713-1.html)

### ②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물재생센터」로 변경 (동경)

최근 일본 東京都 하수도국은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물재생(水再生) 센터」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더러워진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 하천이나 바다로 되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처리된 물을 빌딩의 화장실 용수나 하천의 청류부활(清流復活) 용수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다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명칭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4,749건의 후보작 중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물재생센터 외에 물의숲파크, 물순환스테이션, 수질보전스테이션 등의 명칭이 많이 응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都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 2003년 7월 4일자 보도자료)

### ③ 대기오염 감축 위해 연료전지버스 본격 운행 (런던)

유럽에서는 연료전지버스의 실용화를 위해 1997년 o-405 저상버스를 기본으로 하고, 이 버스에 연료전지 stoik-unit를 탑재한 NEBUS를 완성했다. 이 버스는 2003년부터 런던, 암스테르담 등 유럽 8개국 10개 도시에서 시판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기본형 버스가 길이 12m, 정원 70명, 최고속도 80km/h, 주행거리 200~300km/h라고 한다.

이러한 연료전지버스는 청정연료버스인 고압수소형 Fuel-Cell Bus로서, 현재 30대가 운행중이다. 이와 같은 청정연료버스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중국에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철도저널(일본판), 2003. 8, No.442, p.130)

### ④ 쓰레기배출 감량을 위한 「G30 행동선언」 추진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2010년까지 市전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2001년도에 비해 30%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 「G30 행동선언: 350만인의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市의 쓰레기 처리량은 1993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01년에는 166만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시민 1인당 연간 약 480k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市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이고, 다음 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정책계획을 마련했다.

「G30 행동선언」에서 G는 쓰레기를 뜻하는 일본어 Gomi의 G, 영어 Garbage의 G, 그리고 감량을 뜻하는 라틴어 Genryou의 G를 의미하며, 30이란 숫자는 2010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의 절감목표가 30%라는 의미이다. 이 계획은 시민, 사업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발생 억제(Reduce),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화하는 재활용(Reuse), 재생 이용(Recycle) 등 3R 운동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pcpb/g30/index.html](http://www.city.yokohama.jp/me/pcpb/g30/index.html))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5] 시의회, 그린벨트 보호 위해 개발계획안 부결 (영국: 셰필드)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셰필드(Sheffield)市 의회는 최근 제안된 2건의 개발계획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그린벨트를 보호했다. 계획·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Deepcar 지역 골프클럽의 주차장 추가건설계획과 Ecclesfield 지역의 주택건설계획을 부결했다. 대신, 시의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 미개발용지 외에도 이용 가능한 개발용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도 골프클럽 주차장 건립으로 수목이 손실되고 지역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해 건설계획에 반대해왔다.

([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203](http://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203))

### 6] 도심진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제도 성공적으로 정착 (런던)

영국 런던市는 도심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동안 실시한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수록,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혼잡통행료 징수로 전체 운행차량의 16%가 감소했고, 자동차를 이용하던 승객의 1/3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 목표인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ransport for London'은 징수한 통행료를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투입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차량 소통속도가 증가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서 주행속도가 37%나 향상되었다. 둘째, 교통혼잡도가 목표치 이상으로 저감되었다.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혼잡도가 작년에 비해 40%까지 감소되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향후 혼잡통행료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조사 결과도 상세히 수록되었다. 또한 교통흐름, 교통, 경제, 업무, 환경 등에 관한 조사 결과도 모두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www.tfl.gov.uk/tfl/cc\\_monitoring.shtml](http://www.tfl.gov.uk/tfl/cc_monitoring.shtml))에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70](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70)) (METRO, 2003. 6. 6)

# 도시교통/사회복지

## ■ 세계도시동향 ■

### 7 가장 오래된 지하철역의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계획 추진 (런던)

영국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역은 1868년에 건설된 South Kensington역이다. 이 역은 매일 약 3천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市에서 가장 혼잡한 지하철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이 지하철역의 재개발이 추진중인데, 수백만 파운드가 소요되는 이 계획은 주변 Thurloe Street과 Pelham Street의 약 1.75에이커를 함께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런던 지하철’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목적은 지하철역의 현대화이다. 이를 위해 첫째, 넓은 티켓 홀 설치, 둘째, 빨리 나갈 수 있는 출구 설치, 셋째,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넷째, 버스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METRO, 2003. 6. 6)

### 8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치료 실시 (스페인: 에스테포나)

스페인 에스테포나(Estepona)市는 정맥두염, 부비강염, 관절염, 신경통, 각종 궤양 등으로 몸이 불편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료를 원하는 노인 환자들은 시내 Paraiso Hotel에 위치한 중국의 전통침술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침술은 WHO에서도 효능을 인정했으며, 치통, 두통, 알레르기비염, 위염, 변비 등에도 역시 효능이 있다고 한다.

([www.surinenglish.com/noticias.php?Noticia=1974](http://www.surinenglish.com/noticias.php?Noticia=1974))

### 9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교실」 개최 (일본: 이바라키縣)

일본 이바라키(茨城)縣은 건강과학센터 주최로 7월 24일, 29일, 31일 3일간 초등학교 5~6학년생 3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교실」을 무료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과 여름철 건강유지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24일에는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29일에는 치과 검진과 함께 ‘구강관리 강좌’, ‘운동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체력 측정, 에너지 소비량, 올바른 식습관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 31일에는 ‘식사와 영양 강좌’, ‘간단한 목장 만들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이외에도 비디오 상영과 독후감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www.hsc-i.jp/hsc/journal/pocket/pokketto.42/newpage4.htm](http://www.hsc-i.jp/hsc/journal/pocket/pokketto.42/newpage4.htm))

### 10 공무원 인사에 ‘능력등급제’ 도입 (동경)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제도 개혁관련 3개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법안, 민관인사교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국가공무원 고시 합격자만 간부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재직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능력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능력등급법안에서는 행정, 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등급표를 작성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비례해 직위와 급여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 2003. 7. 3) (The Daily Focus, 2003. 7. 4)

### 도로현장 파견공무원의 근무태만 신고제도 도입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미국 일리노이주 교통부는 교통부 산하 소속공무원이 도로 현장에서 근무태만 행위를 보일 경우,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는 이를 위해 교통부의 모든 소속차량에 이를 알리는 문구 및 신고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주는, 이 제도의 목적이 일한 만큼 보수를 주고 근무태도가 좋은 공무원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주는 이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 신고전화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태만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행동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자의 신원 등을 분명히 기록하고, 신고내용의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주교통부는 현재 근무 인원의 약 10% 정도가 근무태만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lazy03.html](http://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lazy03.html))

### 시민이용시설 인터넷예약시스템 시행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대관 신청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이용시설 예약시스템’은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운동공원, 테니스코트 등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내 회의실 등의 이용 예약도 전화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먼저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의 날짜별 예약상황과 공실 여부를 파악한 후 시설물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www.city.yokohama.jp/ne/life/shisetsu2/hamakko.html](http://www.city.yokohama.jp/ne/life/shisetsu2/hamakko.html))

### 민간자본 활용해 노후화된 철도차량 교체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9,335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이지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러시아철도망 전체에서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 러시아 경제에서 철도차량은 석유만큼 중요하며, 철도화물은 총화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공식추계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차량의 58% 이상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교체비용은 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부족한 정부는 금년 5월에 신규 설립된 관영 ‘러시아 철도회사(Russian Railways Co.)’에 기존의 철도자산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러시아 철도회사’는 2004년부터 몇 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일부는 민간에 매각된다. 이에 따라 철도인프라는 정부 통제에 남게 되나, 60% 이상의 철도차량은 민간부문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Business Week, 2003. 4. 28)